

중국 조선족 아동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사 라* (경희대학교 연구원)

박 해 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교수)

연구목적: 인간의 적응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적 기제로 애착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애착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동의 또래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 변인의 영향력도 분석하고자 한다. 애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따라서 아동기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조선족 사회가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와 영향에 비해 이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사회정서적 발달환경을 이해하고 조선족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6학년 학생 130명과 중국 연변 조선족 소학교 6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측정도구로 애착의 측정을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를 사용하였고, 또래관계는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노숙영(1997)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11과 Amos 4.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중국 조선족 아동의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애착과 또래관계의 하위변인간 대부분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또래관계와 자아개념의 하위변인간에도 대부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간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의 하위변인간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중국 조선족 아동의 경우,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는데, 즉, 안정된 애착이동일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이동일수록 또래관계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이 자아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애착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정 애착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도 자아개념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애착이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적응변인으로 꼽히는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적인 차이에 영향 받지 않고 사회□정서 및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